도내 제1호 우수건축자산 '군산시민문화회관'

전북자치도, 상징성 · 건축적 가치 인정 첫 등록… 전북 건축자산 보존 첫 사례

전북특별자치도는 군산시민문화회관을 도내 제1호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이번 등록은 8월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우수건축자산은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역사·경관·예술·사회문화적 가치가 높은 건축물을 등록·관리하는 제도다. 군산시민문화회관은 그 상징성과 건축적 가치가 인정돼 첫 등록의 영예를 안았다.

군산시민문화회관은 대한민국 현대건축 1세대 김중업 건축가의 유작으로, 1989년 개관 이후 군산 문화예술의 중심지 역할을 해왔다. 전통 건축의 곡선미와 노출 콘크리트, 기하학적 유리매스를 조화시킨 독창적 디자인이 특징이다. 특히 지붕은 해양도시 군산을 상징하는 배(船) 모양으로 설계돼 지역성과 상징성을 동시에 담았다.

건물 전면 광장에 설치된 환경조각 '해조음'(백문기 作)도 눈길을 끈다. 바다와 파도, 떠오르는 해를 형상화한 이 작품은 건축물과 조화를 이루며 공간적 의미를 더한다.

군산시민문화회관은 1980년대 정부의 지역문화시설 확충 정책 속에서 건립됐다. 대도시에 집중된 문화 인프라를 지방으로 확산하기 위한 정책이었으며, 건립 과정에는 지역 예술인과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시민이 세운 문화공간'이라는 의미를 더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군산시민문화회관을 도내 제1호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했다.

개관 이후에는 회관은 월드컵 거리응원, 대통령 분향소, 촛불집회, 전시회, 졸업식 등 다양한 행사가 열린 공간으로, 세대를 아우르는 공동체의 기억을 간직해왔다.

그러나 2013년 군산예술의전당 개관 이후 주요 기능이 이전되면서 회관은 폐관됐고, 유지관리 비용 부담으로 철거 논의까지 제기됐다. 전환점은 2019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인정사업 선정이었다. 이 사업은 운영자와 설계자가 초기 단계부터 참여한 전국 최초의 민관협력(PPP)형 도시재생 모델로 추진돼 주목을 받았다.

리모델링은 2023년 1월 착공해 2024년 10월 준공됐으며, 같은 해 12월 재개관했다. 이번 재생사업에서는 생활예술 중심의 문화거점 조성, 지역 예술가·소상공인 연계, 보행약자 접근성 강화, 친환경 설계가 반영돼 회관은 열린 문화 플랫폼으로 새롭게 태어났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이번 등록이 단순한 건축물 보존을 넘어, 지역 정체성과 시민 삶의 흔적을 지켜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형우 건설교통국장은 "군산시민문화회관의 가치는 건물 그 자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함께했던 시민들의 기억과 지역 문화의 흐름 속에 있다"며 "앞으로도 전북의 건축자산을 보존하고 활용해 지역문화 진흥과 도시 경쟁력 강화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동편제 국악축제' 남원서 열린다

내달 13일 남원 황산대첩비지 · 정자마루 일대서 개최

남원시는 제11회 동편제 국악 거리축제를 오는 9월 13일, 남원 황산대첩비지와 정자마루 일대에서 화려하게 막을 올린다.

이번 축제는 동편제 판소리의 맥을 이어오며 국악의 현재를 조망하고, 미래의 가능성을 열어가는 뜻깊은 무대가 될 전망이며, 지리산의 자연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1부 정자마루 콘서트는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다채로운 무대로 꾸며진다.

이번 무대에는 원나경, 장서윤, 변상엽, 이민형, 소리꽃가객단, 정은혜, 김인수 등이 출연하여 맑고 깊은 국악의 울림을 선보이며 관객들에게 국악의 매력을 고스란히 전달할 예정이다.

2부 소리열전 슈퍼콘서트는 이번 축제의 하이라이트로, 국악의 진수를 느낄 수 있는 대규모 무대를 마련, 동편제 국악의 상징인 안숙선 명창을 비롯해, 대중성과 전통성을 함께 갖춘 송가인, 우리소리 바라지, 채수정, 박근영이 국악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아우르는 감동의 무대를 선사할 예정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북여성가족재단, '결혼천국 부부캠프' 참여자 모집

전북여성가족재단(전정희 원장)은 '결혼천국 부부캠프'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결혼천국 부부캠프'는 전북지역의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고자 기획됐다. 특히 부부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건강한 의사소통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실질적 교육을 통해 부부의 정서적 유대감 강화 및 잠재적 출생률 증가에 기여하고자 한다.

이번 캠프는 전북지역에 거주하는 예비부부 및 결혼 5년 이내 부부 총 20쌍이 참여해 △현실적인 결혼생활을 위한 재정관리 교육 △성생활과 친밀감 증진 교육 △갈등 해결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훈련 등을 실시한다.

모집은 선착순으로 진행, 1차는 8월 25일부터 9월 12일까지며, 2차는 9월 25일부터 10월 24일까지다.

캠프 개최일정은 1차는 9월 20일, 2차는 10월 31일 고창 상하농원 파머스글램핑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전정희 원장은 "'결혼천국 부부캠프'는 부부간의 실질적인 협력과 소통 방법을 배우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행복한 가정문화 형성과 사회적 안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전북여성가족재단 홈페이지(https://www.jbwf.or.kr/)를 참고하거나, 전화(063-254-3813)로 문의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 장편소설 연재 - 깡패와 굿패

1부 '깡패와 장구' (14)

안녕하세요.

- 오상근 -

"봉사활동은 이곳 호암마을에서 할 거예요. 지난겨울 폭설로 여기 있던 돼지막사가 다 무너졌어요. 그걸 치우고 있어요."

당신도 여기서 같이 돼지막사를 치워야 한다가 아니라 치우고 있다고 말하는 건, 당신은 그냥 옆에 서 있기만 하면 된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을 것이다.

동식도 보호관찰관의 의도를 충실하게 따르기로 했다. 깨끗한 하얀 추리닝과 운동화에 흙을 묻힐 수는 없는 노릇 아닌가.

그래도 출석했다는 표시는 내야 함으로 금방 자리를 뜰 수는 없고 그렇다고 썩은 나무토막들을 나르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지저분한 쓰레기들을 만져가며 일을 할 수도 없어서 보호관찰관으로부터 보고 아닌 보고를 받은 그 자리에 서서 잠시 작업하는 사람들을 지켜보다가 주머니에서 말보로를 꺼내 불을 붙이고 이 동네가 나환자촌이었다고 하는데 대체 어떻게 생긴 동네인지 구경이라도 해보자는 참으로 걸음을 옮겼다.

사람들 눈들이 있어서 멀리 가지는 못하고 주변을 둘러봤다. 행정구역상 고창읍에 속해 있었지만 완전 시골이다. 그것도 70년대 이후에는 손을 댄 일이 없는 낙후된 마을이다.

낡은 슬레이트 지붕과 블록 한 장으로 벽체를 세운 남루하기 짝이 없는 주거지들이 쓰러질 듯 힘겹게 서 있었다. 하기야 나환자촌이었다고 하니 얼마나 누가 관심을 가졌겠는가.

마을 위쪽으로 성당인지 교회인지 십자가 첨탑이 보였는데, 머리에 회색 두건을 쓴 여자 두 명이 부지런한 걸음으로 나오더니 작업현장으로 걸어왔다. 두건 모양이 수녀들이 쓰는 베일이었고 두 여자는 수녀인 모양이었다.

두 사람 다 나이가 들어보였는데 그 중 한 명은 여자치고는 키가 컸고 덩치가 있었다. 얼른 봐도 여기 한국 사람이 아닌 서양인으로 보였다.

"안녕하세요."

생각지도 않게 그 서양인 수녀가 활짝 웃으며 동식에게 인사를 건넸다.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나는 담배를 물고 있던 동식은 얼른 담배를 뒤로 감추고 고개를 숙여 답례를 했다.

수녀들이 있는 걸 보니 십자가가 있는 저 낡은 건물은 성당인가. 이런 구질구질한 시골 촌구석에 성당이 자리해 있는 것도 낯설었고, 그 보다 더 생경한 상황은 이 작은 성당에 서양인 수녀가 있다는 사실이었다.

안녕하세요, 인사를 건네는 말이 유창한 한국말이었다. 호기심이 일었다.

동식은 마저 담배를 피우면서 서양인 수녀를 물끄러미 쳐다봤다. 다른 수녀와 마찬가지로 그녀는 시골 아줌마들이 입는 펑퍼짐한 몸뻬 바지를 입었다. 작업을 하려는 건가.

그녀는 다른 수녀와 함께 굴삭기가 한쪽으로 옮겨놓은 낡은 나무토막들과 잡쓰레기들을 들어 옮겼다. 수녀가 저런 일까지 하는 건가.

우리나라 사람도 아니고 서양에서 온 수녀가 저런 궂은일까지 하다니 게다가 우리말도 잘 하고. 한국에 온지 오래된 건가.

"아이고 수녀님, 이런 거까지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허허허."

"일 할 사람도 부족한데 우리라도 도와야지요. 우리도 마을주민인데 당연한 거 아니요, 호호호."

서양 수녀는 동네사람들로 보이는 사람들과 스스럼없이 정담을 나눴고 유쾌하게 웃으며 일을 했다.

서양 수녀는 무슨 사연으로 이 촌동네에 와 있으며 거리낌 없이 저렇게 노동을 하는 건 왜일까.

동식은 다 태우지 못한 말보로를 얼른 바닥에 버리고 신발로 불을 껐다. 담배나 피우면서 구경꾼 노릇하려 했던 스스로가 멋쩍었다.

수녀가 그것도 한국 사람도 아닌 나이 든 서양 여자가 저렇게 자기 일인 듯 나서서 손을 보태고 있는데 팔짱을 낀 채 폼을 잡고 구경만 하고 있는 게 부끄럽다고 할까.

전주매일 캠페인

춘향전의 무대

남원 광한루

광한루는 조선시대 이름난 황희정승이 남원에 유배되었을 때 지은 것으로 처음엔 광통루(廣通樓)라 불렀다고 한다. 광한루(廣寒樓)라는 이름은 세종 16년(1434) 정인지가 고쳐 세운 뒤 바꾼 이름이다. 지금 있는 건물은 정유재란 때 불에 탄 것을 인조 16년(1638) 다시 지은 것으로 부속건물은 정조 때 세운 것이다.

규모는 앞면 5칸 · 옆면 4칸이며 지붕은 옆면에서 볼 때 여덟 팔(八)자 모양을 한 팔작지붕이다. 누마루 주변에는 난간을 둘렀고 기둥 사이에는 4면 모두 문을 달아 놓았는데, 여름에는 사방이 트이게끔 안쪽으로 걸 수 있도록 해 놓았다. 또한 누의 동쪽에 있는 앞면 2칸 · 옆면 1칸의 부속건물은 주위로 툇마루와 난간을 둘렀고 안쪽은 온돌방으로 만들어 놓았다. 뒷면 가운데 칸에 있는 계단은 조선 후기에 만든 것이다.

춘향전의 무대로도 널리 알려진 곳으로 넓은 인공 정원이 주변 경치를 한층 돋구고 있어 한국 누정의 대표가 되는 문화재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글: 문화재청 제공〉